제311회국회 (정기회)

국회쇄신특별위원회회의록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11월2일(금)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계속)

심사된 안건

1.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계속) ····· 1

(07시49분 개의)

○소위원장 정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계속)

○소위원장 정희수 의사일정 제1항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를 계속 상정합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좋은 시간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전체회의 때 보고를 했고 이번에 의견을 취합해서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이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다 보고해 주시고 나서 중요한 순서대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취합한 내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선 국회쇄신과제 5차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자료인데요.

먼저 전체 특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위원실에 전부 접촉을 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섯 분의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맨 처음에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와 관련해서는 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쇄신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요지인데요. 겸직 금지와 관련해서 의견요지는 모든 겸직을 예외 없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직이라도……

○박범계 위원 잠깐만, 왜 개인 실명을 안 넣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저희들이 갖고는 있는데요, 위원님들 실명이라 가능하면 안 적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왜요?

○함진규 위원 자료가 나가니까요.

○박범계 위원 그게 자료가 나가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안 밝혀요? 그것을 밝혀야 논의가 되는 것이지. 그게 왜 기밀사항이에요? 중요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아니,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설명하면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구두로 얘기를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모든 겸직을 예외 없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명예직이라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또 겸직 허용 대상 직종과 신고 방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김성곤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현행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돼 있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책임정치 차원에서 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원혜영 위원님하고 김성곤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리업무 종사 금지 관련 의견요지인데요. 영리업무 허용에 예외를 두게 되면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김성곤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임대소득 증가를 위한 영리업무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강동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부사항과 관련해서, 의장으로부터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의 휴직 또는 휴업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소위 안에서는 '1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3개월 이내'로 하는 게 좋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김영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까 '당선 이후 임대소득 증가' 이것은 어느 분이라고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강동원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견을 밝히시지 않은 분들은 의견을 내지 않으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맞습니다. 여섯 분만 주셨습니다.

○박범계 위원 나머지는 의견을 안 주셨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소위원장 정희수 그리고 두 번째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계속 다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정희수 계속 다 하고 난 다음에……

○권은희 위원 이것을 하나씩 정리를……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전부 다 이야기를 듣고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5쪽이 되겠습니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인데요. 기존 지급자 지급 제외 요건 중에서 재직기간 요건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어서 반대이고, 소득 요건도 지원금은 품위유지 명목도 있으므로 반대하는데, 제명 또는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 상실 시 지급 제외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함진규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급대상자 지급 제외 요건에 사학연금 등 기타 연금 수혜자도 추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동원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지금 소위에서 논의한 종합소득 범위에는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에 제19대부터 적용할 수 있는 의원연금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의견은 김성곤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소위원회에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되 연금제도 도입 여부는 중장기 과제로 계속 논의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소위에서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소위원장 정희수 그때 1차 소위 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요.

○함진규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영교 위원 국민연금이지요.

○함진규 위원 일반 직장은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권은희 위원 연금 다 있지요.

○함진규 위원 국회의원만 없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국회의원도 국민연금은 있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우리는 국민연금이지요.

○함진규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권은희 위원 할 필요 있지요. 왜 없어요.

○이철우 위원 없어요. 거의 특권입니다.

○함진규 위원 특혜라고 생각하면 하지 마요.

○서영교 위원 특혜 아니에요.

○박범계 위원 특혜 문제는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국민연금인데, 지금 공무원 직종이니까 공무원연금에 적용하면 되는데 조금 뭐한 그런 부분이 있지요.

○함진규 위원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세 번째, 원 구성 지연 방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의장 선출 의무화 관련 요지인데요. 의장 선출 의무화 강화 문제는 다수당에 의해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선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강동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선거 특례 관련 요지인데, 상임위원장 배분 특례 규정에 소수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수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강동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 시 1교섭단체가 배분된 수만큼 우선 선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차선택 방식은 여전히 협상 여지를 제공하고 특정 정당이 선택을 거부하게 되면 원 구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함진규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상임위원장 배분 시 교차선택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제1안은 제1교섭단체에 배분된 수와 제2교섭단체에 배분된 수의 차이만큼 제1교섭단체가 우선 선택한 후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가 선호하는 순위가 표시된 명단을 동시에 의장에게 제출하여 선택하되 선호하는 순위가 같을 경우 제1교섭단체가 우선권을 가지고 제2교섭단체는 다음 선호순위의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으며, 이를 제1교섭단체와 제2교섭단체에 배분된 수만큼 상임위원장이 모두 배정될 때까지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3교섭단체 이후부터는 해당 몫의 상임위원장 수만큼 남을 때까지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남은 상임위원장을 제3교섭단체부터 교차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의견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한 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제1교섭단체에 배분된 수와 제2교섭단체에 배분된 수의 차이만큼 제1교섭단체가 우선 선택한 이후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제1교섭단체와 제2교섭단체가 차례로 교차선택을 하고, 제3교섭단체 이후부터는 해당 몫의 상임위원장이 남을 때까지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남은 상임위원장을 교차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구속 시에 수당 등 미지급 관련된 사항인데요. 의원 구속 시에 수당 지급을 금지하더라도 형의 경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벌금형 확정 시에도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 아니냐, 이것은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요.

구속재판·불구속재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논의돼야 된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 의원은 수당이 지급되고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 의원은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혜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력 방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에 보시면 국회폭력 처벌 및 피선거권 제한 관련 의견인데, 소위 심사결과로는 피선거권 제한 등의 구성요건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고,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피선거권 제한 등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권성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안대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벌금형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권성동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회폭력에 대한 국회의장 고발의무화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의장의 고발 남용이 우려되고 고발취소 금지도 과도한 제재 조치다, 고발할 경우에 윤리특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정당 간 신뢰 회복을 위해 고발취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강동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회폭력 처벌 방안이 전반적으로 과도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벌금형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고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과도한 제재다, 그래서 이중처벌에 해당될 수 있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국회폭력은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서 같은 법률에서 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 그리고 벌금형까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폭력 자체만을 처벌하면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국회폭력 처벌 강화보다는 윤리특위에 일반 시민참여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원혜영 위원님과 강동원 위원님 그리고 김성곤 위원님 세 분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국회폭력 처벌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10년에서 5년간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것은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국회폭력 보좌직원 및 당직자 동원 관련 의견 요지입니다.

국회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보좌직원이 당연퇴직되고 보좌직원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강동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국회폭력 사태에 당직자 동원 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것은 당직자 동원 시에 원내대표 사임 방안 등을 거론할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13쪽은 추가논의 필요사항인데, 국회폭력제재 구성요건 관련해서 권성동 위원님께서 현재 소위원회 안을 가지고는 공직선거법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사위원회에 나와 있는 판사 그리고 변호사들과 논의를 해서 특가법에 일정한 국회폭력에 대해서 형벌을 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신설해야만 명확하게 법적 구성요건이 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국회법에 넣으면 되는 것이지 특가법에……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법은 하나의 절차법인데, 그래서 지금 형법에 넣는 방안도 있는데……

○박범계 위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파견 나온 판사하고……

○박범계 위원 판사예요, 검사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판사입니다.

기존의 형법에 넣는 방법도 있는데, 형법이 형사처벌의 기본적인 형법인데 거기다가 국회폭력만 따로 집어넣는 것도……

○박범계 위원 국회법에, 그날 얘기했었잖아요? 왜 그런데 오늘……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국회법에는 금지조항 문제입니다.

○박범계 위원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을 함께 넣으면 되는 것이지요. 구성요건을 어디에 넣어도 관계없는데……

○함진규 위원 일단 다 들어 보고 나중에 토론하자고.

○박범계 위원 국회 내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니까 가능한 한 국회법이라는 기본법에 넣는 게 좋지 않아요? 왜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이상한 괴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이 발상 자체가 웃긴다 그 말이에요.

그날 저하고 말씀 그렇게 하셔 놓고, 국회법에 넣으면 된다……

○함진규 위원 그거 나중에 토론하자고. 일단 다 스크린하고 하자고.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저희들은 국회법에는 금지조항 넣고, 일반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면 국회폭력 내에서의 형사처벌이라는 명문이 안 나온답니다, 판사들은.

○소위원장 정희수 쇄신을 강하게 하자는 의미니까 나중에 한번 봅시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17쪽이 되겠습니다.

쇄신특위 위원 의견 요지입니다.

인사청문 대상자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안대로 처장, 청장, 차관, 국회사무총장도 인사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 위증죄 처벌 벌금형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박범계 위원 괄호 2는 누구 의견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함진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것은 원혜영 위원님께서 내셨는데, 이것은 18대 때 원혜영 의원님께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행안위에 냈었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이 중에 그때 우리가 소위에서 논의가 미흡한 순서대로,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원 구성 지연 방지 관련부터, 우리가 논의가

미흡했기 때문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력, 헌정회, 의원 겸직, 인사청문 이런 순서로……

○이철우 위원 큰 쟁점이 없으니까 오늘 다 한다 하는 것은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소위원장 정희수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고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잘 봐서……

○이철우 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3주뿐이 안 남았는데 다 처리 못 하고 선거하러 가실 겁니까?

○소위원장 정희수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합의된 것부터 먼저 올리면 되잖아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우선 그 전에……

제가 몇 번 제기했는데, 오늘 저희가 논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잘못 알려진 부분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냥 이 안에서 우리끼리 있지만 그래도 밖에서 국회쇄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바깥의 시각에 맞춰서 저희가 가는 것들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잔잔하게 다 들어가다 보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밖에서 요구했던 우선 쇄신이 뭐냐 그것을 받아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함진규 위원 이게 본안인데 이거 먼저 하지, 이것은 나중에 하고.

○서영교 위원 오늘 이 얘기는 나눠서 보고 전체적으로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안 정하셨지요? 밖에서……

그때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못 했던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사실상 저희가 우선순위가 뭐다라고 정하기 힘듭니다.

저희들은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국회쇄신 대상이라든가 또 언론보도에서 의원특혜 관련이라고 보도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어디 언론매체에서 토론을 하는데 그분은 운영위원회에도 속해 있지 않고 여기 쇄신특위에도 당연히 속해 있지 않은데,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요.

쇄신특위에서 논의되는 이러한 의제들이 이게 박근혜 후보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겨 가지고 당신은 국회 쇄신특위에도 안 들어가 있고 운영위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간사인 나는 그러면 박근혜 후보님의 쇄신의제에 추수(追隨)하는 딸랑이냐……

자, 여기에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함진규 위원 박근혜, 그게 뭔 말이에요?

○박범계 위원 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함진규 위원 예.

○박범계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함진규 위원 갑자기……

○박범계 위원 갑자기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우리 당의 위원들도 설득을 해 가지고 쇄신과제로서 부드럽게 통과가 되려면 정치적 공세와…… 상당히 뉴트럴(neutral)하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 누군가에 정치적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이 쇄신과제가 가고 있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그런 차원이 현실적으로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의원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관련 이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헌정회, 두 가지를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의제는 우리가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쇄신특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합의가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추후 논의에 맡기는,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소위에 계시지 않은, 예를 들어서 원혜영 위원님이나 김성곤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논의한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서 무리하게 합의를, 소위 차원의 합의나 의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논의는 하되 가능한 한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만큼은 내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 야, 당이 없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중립적으로, 양심적으로 접근하자, 그것은 내 소신은 변함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후보 이것은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것, 충분히 논의하자,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우선 합의된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서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깊은 것은 또 하는데, 내 경험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폭력, 이게 국민들 워낙 눈살을 찌푸리게 하니까 이것은 쇄신을 하는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들한테 이해가 되고 박수를 받는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 원인 제공이 원 구성 지연, 협상해서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늦어지고, 엄청 신뢰가 추락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달도 안 해 가지고 120만원씩 받는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고요. 또 특권, 겸직, 별의별 것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소위를 거치다가 미흡하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제대로 못했던 것 이것을 이번에 시간을 내서, 이번에 소위에서 제대로 안 되면 다음번 소위 또 한 번 더 하고 이번에 합의되면 전체회의에 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양 트랙을 써서 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진규 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하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때 폭력 하다가, 원 구성 하다가, 전체회의에 넘기자 하다가, 그때 소위에서 다시 왔으니까……

○권은희 위원 폭력 방지부터 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래요. 폭력 하고 그다음에 원 구성 하고 그렇게 하지요.

○서영교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잘못 나와 있다는 게 아니라 쇄신대상에 'KTX·항공기·선박 무료이용, 특혜·특권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주셔야지요.

○함진규 위원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서영교 위원 이것은 지적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까 다음에 한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동안 다 읽었더니 그것에 대한 그게 없어요.

이것만 나눠 줬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지금 두 가지 사항인데 하나는 언론보도로 본 국회쇄신 대상이고, 의원 특혜관련 언론보도 내용 관련해서 어떤 것은 사실인 게 있고 어떤 것은 얼토당토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만 나눠 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다음에 하자고 자꾸 그러면 지금 대화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희수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원 구성 지연, 이것 때문에 국회가 많이 늦어지고 이것도 원인 제공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논의가 미흡했단 말이에요, 우리 소위에서. 그래서 이걸 하고 그다음에 폭력 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원 구성 지연요?

○소위원장 정희수 예, 원 구성 지연요.

○박범계 위원 아니, 일단 첫 번째 부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는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정희수 이건 다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겁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위에서 지금 개별의견을 내셨잖아요. 이분들 의견을 간단하게라도 터치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소위원장 정희수 할 거예요.

○박범계 위원 아니, 쉬운 것부터 일단, 1번, 2번 이렇게 순서대로 쉬운 것부터……

○소위원장 정희수 그런데 논의가 미흡했던 것부터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또 오늘 못할 텐데요.

○서영교 위원 강동원 위원님 오시고 그랬으니까 금방 얘기했던 원 구성 지연, 늦어지는 것과 폭력,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원래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의견들이 많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과.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 강동원 위원님도 거의 처음 참석하셨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좀 같이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박범계 위원 어디부터, 그러니까 우리 서 위원님은……

○서영교 위원 원 구성 지연 그다음에 폭력, 위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해도 될 것 같다는 것이지요.

○박범계 위원 그래요, 그럼.

○서영교 위원 예.

○소위원장 정희수 원 구성 지연에 대해서……

○서영교 위원 합의는 어렵겠지만 어떻든 의견은 지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희수 예, 그러니까요.

한번 이야기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원 구성 지연은 8쪽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죄송한데 제가 9시에 성폭력특위 법안소위가 있어서……

○소위원장 정희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9시까지 내가 마무리를 어느 정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 구성 지연에 대해서 내가 좀 뭐 하지만 우선 물꼬를 한번 틀까요?

○박범계 위원 여기 다 있잖아요. 다 봤는데……

○소위원장 정희수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 위원 꼼수로 생각하는데요.

○소위원장 정희수 누가 꼼수를 써요?

○박범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꼼수를……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꼼수가 아니고요.

○박범계 위원 일단은 큰 줄기가 그때 우리 이철우 선배께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교차 배분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잖아? 이루어졌는데 지금 새로운 1안, 2안이 위원장님하고 함 간사님 안으로 새로 나왔는데 결국 복잡해서 다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딱 읽어 보니까 느낌상 중요한 것은 일단 다수당이 먼저 가져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이렇게 나온 것 갖고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박범계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정희수 예.

○박범계 위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1안, 2안은 교차 선택이라는 기본적인 취지는 살리면서 동시에 예를 들어서 반드시 다수당이 가져가고 싶어 하는 몇 개의 상임위원회가 한 서너 개 있다면 그 부분은 다수당이 먼저 취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교차 선택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교차 선택의 취지가 어떻든 의석수의 비율대로 가능한 한 좀 평등하게 주자, 평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교차 선택은 이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현재의 우리 의석배분 수로, 현재 19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인 동시에 집권당이잖아. 그러면 국방위라든지 외통위라든지 이런 데는 양보 못 할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또 법사위도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과 함 위원님이 제시한 1안과 2안을 보니까 결국은 갭만큼, 1당과 2당 사이의 그 의석수의 갭만큼 먼저 차지하겠다는 것은 국방위, 외통위, 법사위는 일단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교차 선택하자라는 이런 취지예요. 이건 곤란하다 이거지. 이건 곤란하다, 이건 교차 선택이라는 대 양보를 한 이철우 선배의 의견이 몰각된 아주 나쁜 꼼수다, 이런 얘기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잠깐만요.

그 꼼수는 내가 동의를 못 하고, 그건 내 인격 모독이라고.

○함진규 위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희수 우리 스토리를, 강 위원 처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거듭 이야기하지만 나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집권당이 1당이 되지만 또 다음번에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은 다음번 20대부터 적용하는 문제를 미리 우리가 규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당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누가 잡든 간에 그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전부 다 1당이 되면 다 갖고 가자 이런 안도 나왔고, 그러면 2당, 3당의 경우에 좀 불리하다 하니까 그러면 의석 비율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때 6인소위에서 합의를 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2당, 3당이 좀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서 위원이 그러면 우리 교차하자, 그러면 좋다 이거지. 교차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짝수가 5개, 5개 딱 됐을 때는 교차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10개, 8개 되면 이것 교차하는 방법이 위에 2개가 뻘쭘하게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2개는 일단 교차하는 것

을 2당, 3당한테 프리미엄을 주니까 뻘쭘하게 나온 것은 그러면 1당에 대한 그걸 주자, 왜 그러냐 하면 역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 뻘쭘하게 나온 것을 1당한테 안 주고 처음부터 이렇게 되게 되면 뒤로 갈수록 2당, 3당에 더 프리미엄이 가는 거예요. 3당이 먼저 세 번째로 선택을 해 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피해는 2당이 되는 거고 가장 피해가 1당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뻘쭘하게 튀어나온 것은 1당을 주고……

○박범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 보자고요.

현재 19대를 기준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놓고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안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함진규 위원 그것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요, 잠깐만요.

내가 했던 것……

○박범계 위원 그려 놓고 합시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전체 몇 개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18개입니다.

○박범계 위원 18개인데 위원장님 안대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1당과 2당의 비율이 10 대 8이라고 놓고 보고 한번 위원장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그건 2개 안이 되지요, 물론 교섭단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10 대 8이 되면……

○박범계 위원 예, 2개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정희수 2개 갭은 일단 1당이……

○이철우 위원 그러면 1당이 3개를 먼저 쥐는 거지.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3개를 먼저 취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정희수 3개를 먼저 취하는 거지.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세요.

○함진규 위원 위원장님, 그것 지금 얘기하시면……

○박범계 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결국은……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박범계 위원 끝까지 좀 들어 보시고……

결국 이건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개를 먼저 꼽는 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곤란하다 이거지. 이건 곤란해.

○이철우 위원 다수당에 유리하도록 해 줘야 돼요.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맨 처음에 10개를 다수당이 다 갖고 가 버리면……

○박범계 위원 그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기각된 안이고……

○함진규 위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느 정당이 되든 선거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1당, 2당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을 놓고 얘기를 하면 이게 협상이 하나도 안 돼. 중요한 초점은 선거를 왜 치렀나를 생각을 하라고.

○박범계 위원 자……

○함진규 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 봐요.

○박범계 위원 교차 선택이라는 기존의 논의에……

○함진규 위원 아니, 다 좋은데……

○박범계 위원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야지 원론적으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선거라는 것은 누가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소수당이 될 수도 있는 원론적으로부터 시작하면 새로 논의를 시작하자는 거지. 지금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 아니, 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박범계 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논의의, 기존의 공감대는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 보시라고.

내가 얘기하고자 싶은 건 대전제를 얘기하는 거야.

○권은희 위원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서영교 위원 이 얘기는 사실 몇 번 했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여태껏 했던 거고, 지금 처음 오시니까 그렇고, 계속 이 얘기는 먼저 했었어요.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봐.

○박범계 위원 지금까지 한 논의는 뭐야, 그러면?

○함진규 위원 아니, 선거를 왜 치르느냐고. 그래서 나는 승자독식으로,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승자독식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적절치 않다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차 선택으로 가자" 해서 갔는데 선거라는 게 우리가 야당이 될 수도 있고 저쪽이 야당이 될 수도 있고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진전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대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1당이 됐으면……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원칙에 동의가 안 된다잖아, 이쪽이. 그런데 이제 대원칙은……

○함진규 위원 그러면 야당 때는 야당으로 유리한 것……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함 위원님이 얘기한 건 계속 이야기한 거고……

○박범계 위원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수당이 돼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서영교 위원 다수당이 돼도 제가 보기에는 소수의 의견이든 서로 조화롭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얘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함 위원님의 이야기는 승자독식으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게 함 위원님의 원칙, 우리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으로 국회만큼은, 전부는 승자독식이지만……

○함진규 위원 그래서 교차 선택으로 갔잖아.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그동안 했었고 그러면 이제 양쪽이……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건 제 의견인데 가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가서 들었더니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견제와 균형을 한다 그렇게 견제와 균형으로 정리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원칙은 뭐냐면 여기서는 승자독식이다 견제와 균형이다 이게 대원칙이 아니라 대원칙은 원 구성을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시작하자 이게 원래 우리 논의의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곧장 함과 동시에 시작하는 대원칙, 만날 시간이 지연됐으니까요. 이래서 이게 이번 쇄신위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그 대원칙은 뭐냐, 양쪽이 그동안 바로 직전에 했던 것의 문제는 뭐냐, 그 문제에서 그러면 빨리 그것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의 이야기는 뭐냐면……

○함진규 위원 얘기를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뒤집어 버리면 만날 협의하는……

○서영교 위원 아니, 어떤 걸 얘기를 다 하고 뒤집었어요?

○박범계 위원 아니, 지금 누가 뒤집는데……

○함진규 위원 아니, 지금 와서 박근혜가 뭐 어쩌니 무슨 원 구성이 우리가 좋은 것을 다 골라가니, 그게 어디 있어요?

○서영교 위원 아니아니, 그것 말고 그 얘기는……

○함진규 위원 좋은 위원회를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느냐고. 교차 선택을 하면 이쪽저쪽 왔다……

○서영교 위원 그런 얘기가 밖에 있다는 이야기를……

○함진규 위원 밖의 얘기를 뭘 알아.

○서영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잖아요.

○함진규 위원 새누리당 누가 얘기를 해?

알지 못하는 소리 하는 것을 가지고……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소리였으니까 그건 넘어간 거고.

○함진규 위원 기가 막힌 소리를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박범계 위원 그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맞아.

○함진규 위원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자꾸……

○박범계 위원 그런데 지금 원 구성 관련해 가지고 정희수 위원장님 안이나 우리 함진규 위원님 안을 놓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18개를 가지고 그러면 갭만큼 한다면 3개를 먼저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함진규 위원 그건 어느 당이 돼도 마찬가지지.

○박범계 위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서영교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이 논의의 출발점이 뭐예요? 이번 19대 국회에서 바로 원 구성이 안 됐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시점까지 반드시 구성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박범계 위원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진전된 논

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정한 시점까지 반드시 원 구성을 하도록 강제를 하는 방법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속에서 어디까지 지금 욕심을 부리느냐 하면 결국은 다수당 독식, 승자독식의……

○함진규 위원 그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이미……

○박범계 위원 취지까지도 사실상 반영을 하려는 안이다 이 말이야. 견제와 균형은 상실돼 있단 말이야.

원래의 취지는 원 구성 지연에 대한 방지책으로써 가능한 한 일정 법정시한까지 원 구성을 의무화시킨다라는 그 문제점에서 시작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승자독식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야. 이건 곤란하다 이 말이야. 견제와 균형은 다 빠져 있다 이 말이지.

○이철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논의를 계속하면 이것 하나를 가지고 밤을 새도 다 못 하는데 이건 빨리 원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상임위를 좋은 것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교차 선택을 하는데 1당, 2당, 3당의 3개 교섭단체가 됐을 때 1번 하고 2번 하고 또 3번, 세 번째 교섭단체가 됐다 이거야.

1·2·3, 1·2·3, 만약에 3개가 있다면 9개를 3개로 빼면 나중에 가면 1당은 저 밑에 다 남은 것만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2당, 3당도 문제를 같이 넣어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박범계 위원 3당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럴 개연성은 있어요. 그런 경우의 수는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철우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3개 교섭단체가 됐다면 그러면 1당만 손해를 보는, 어느 상임위가 좋고 나쁘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하면 굉장히 힘드니까……

○함진규 위원 보드판 없나요, 보드판?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준비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을 가지면 그렇게, 위원장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래서 크게 손해다, 사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니까 여당에 유리하기도 하고 야당에 유리하기도 하고, 진행상으로는 그래요.

저는 그런 흐름도 바꿔 낸다면 제가 보기에는 3당이 세 번째,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당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신 운영의 묘를 살릴 때 위원장만큼은 중립해서 제대로 간다, 폭력도 예방되고 여러 가지 된다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저는 3당이 가져가다가, 그 숫자만큼 갖고 가다 못 갖고 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실은 정치하는 데 소수와 약자를…… 아니지요. 실제로는 다수의 사람을 보호하고 소수와 약자를 절대로 제외하거나 배제시키고 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저는 제가 보기에도 정치도 3당이 세 번째로 뭐 괜찮다고 하는 상임위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철우 위원 아니, 하나를 가지는 건 괜찮은데 그래 가지고 갔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현재 10개를 1당이 가지고 5개를 2당이 가지고 3개를 3당이 가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거야. 3당이 제일 득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서영교 위원 그렇게 가졌다는 건 그만큼의 득표를 했다는 거지.

○이철우 위원 우선권을 먼저 가지니까 1당이 손해야.

그래서 이건 국회 1당이……

○서영교 위원 그건 손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안 풀리는 문제라니까.

○이철우 위원 간사님, 1당이 되면 운영위원장이라든지,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되니까…… 몇 개 상임위는 먼저 선택권을 갖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1당이 된 당에 약간의 프리미엄은 있어야 되지.

○함진규 위원 우리가 야당이 되고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으면 협의가 빨리 진행되는데……

○이철우 위원 아니, 민주당이 되든 어느 당이 되든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소위원장 정희수 나는 절대로 균형을 잡아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이건 이 정도까지,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걸 내가 뭐 1당을 보호하고 2당을 불리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차하면서, 교차는 3당이 페어하게 골라 가는 겁니다. 특정 상임위

고집을 떠나서 상당히 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정도까지……

○이철우 위원 1당이 국회운영위원장 이런 건 갖도록 해 줘야 되니까. 3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갔다, 이래 가지고 하나도 국회가 안 열린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은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다음번 회의할 때 좀 시뮬레이션을 3당 정도로 해 가지고 제시를 해 줄 수 있어요?

○박범계 위원 그것 만날 해 봐야 그것, 여태까지 만날 그 얘기만 했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원 구성 협상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된 거거든. 나는 시스템으로 아예 룰을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대로 원칙대로 가자……

○박범계 위원 좋은데요. 좋은데 지금 과욕이다 이 말이에요.

○권은희 위원 그런데 꼭 과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소위원장 정희수 어떤?

○박범계 위원 세 발자국만 떼면 되는데 적절하게……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민주당 결론은 뭐예요?

○강동원 위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소위에 오늘 처음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소수당이다 보니까 맡은 게 한 10여 개 이상 돼요. 그래서 시간이 잘 안 돼서 못 나왔는데 사실은 오늘 이 논의과정에서 3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대립되고 비교하는 이 단계에서만 3당이 지금 대비가 되는데 사실상 양당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20석 이상이 돼야 교섭단체 구성해서 소위 말하자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소위원장 정희수 교섭단체 중심이지요.

○강동원 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저는 그런 부분은 난망하다고 봐지고요. 양당 체제로 가는데 1당이 예를 들어서 세 위원장을 우선순위로 뽑아 간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동원 위원 교차로 한다는 것이 무리라면 차라리 세 위원장을 한 번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두 위원장 정도는 먼저 하고……

○함진규 위원 참 답답하네.

보드판 안 갖고 왔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걸 왜 우선권이라고 생각을 하나. 참 답답한 소리를 하네.

보드판 갖고 와 봐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지금 구하러 갔습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그건 잠깐 놔두고 다른 논의를 하고……

○박범계 위원 아니, 간사가 되더니만 왜 그렇게 달라졌어?

전에 여기 앉았을 때하고 여기 앉았을 때하고 왜 다르냐고?

○함진규 위원 아니, 간사가 아니라……

아니, 웃기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박범계 위원 웃기는 소리라니?

처음에 1당과 2당이 교차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 여기 앉았을 때하고 달라, 왜?

○함진규 위원 아니, 봐요.

다른 게 아니고 내 말을 들어 보라고.

지금 10개, 예를 들어서 10개……

○강동원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지금 18개의 위원장인데 제1당이 우선적으로 3개 위원장을 먼저 선점한다고. 이 얘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함진규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설명을 드릴게.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 집권당이 10개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한 7개고 그다음에 통진당이 1개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강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 규정대로 보면 3당은 거기에 할애받을 권한이 없으니까 10대 8로 넣고 보자 그런 얘기지요.

○함진규 위원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면 이것을 둘을 합하든 뭐하든 각자 가든 이게 8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막대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어떻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우선권을 준다는 것보다 여기 8개, 8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2개가 많은 걸 이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강동원 위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교차선택으로 나머지 가져가면 되잖아요.

○함진규 위원 맨 마지막에 가져가라고, 이것을?

○박범계 위원 왜 웃어? 이것이 지금까지 논의한 공감대였는데 왜 웃어? 진짜……

○함진규 위원 그러면 집권당을 왜 하는 거야?

○박범계 위원 옆에 배석한 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함 위원님, 왜 간사가 되더니만 달라져?

○함진규 위원 달라진 것 없어, 나는.

○박범계 위원 이철우 위원님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안해서 나갔어.

○함진규 위원 뭐가 미안해서 나가, 그게?

○박범계 위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의 공감대는 1당이 먼저 선택하고 2당이 다음 선택해 가지고 10 대 8 같으면 그러면 나머지 2개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1당이 다 가져가는 이 논의가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그동안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거를 먼저 앞으로 하자는 것 아니야, 지금.

○함진규 위원 민주당은 거꾸로 그러면 맨 나중에, 여기 2개 남는 것을 맨 나중에 가져가라?

○강동원 위원 24일 날 회의도 그렇게 제가 보고……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박범계 위원 왜 갑자기 달라지냐고?

○함진규 위원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에요.

10개에서 그러면 8개, 8개하고 2개를 맨 나중에 가져가라는 소리예요?

○강동원 위원 24일 날도 교차로 해서 1당이 먼저……

○함진규 위원 그러면 선거를 뭐 하러 치르나?

○강동원 위원 그때 보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함진규 위원 어디서 보고를 해요?

○강동원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장 정희수 박 위원, 잠깐 앉아 봐요.

○박범계 위원 강 위원님, 그때 전체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보고 안 받았어요?

○강동원 위원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박범계 위원 왜 달라져, 왜?

○함진규 위원 아니, 의석수가 있는 것을 거꾸로 저기……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강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려면 그날 보고는 그렇게 됐는데 다시 그렇게 논의하자는 관점에서 말씀하셔야지.

○함진규 위원 이게 정당하다고 봐요, 본인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강동원 위원 그러니까 24일 날 전체회의 때 이 내용이 보고가 되었잖아요.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러면 총선을 뭐 하러 치릅니까? 1당을 뭐 하러 해요?

○강동원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지금…… 그 말씀 하시면 안 되지.

○함진규 위원 말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강동원 위원 그러면 24일도 그 얘기를 보고하지 말았어야지요.

○함진규 위원 24일 날 뭘 어떻게 했는데요?

○강동원 위원 24일 날 이 내용이 보고가 됐다니까, 회의에.

○권은희 위원 교차라는 게 뭐가 딱 없이 교차하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함진규 위원 그거는 지들 생각인 거지. 1당이 돼 가지고 운영위원장도 못 차지하고 있으면 국회가 어떻게 되나, 그게? 말같지도 않은 소리, 억지를 부릴 것을 부려야지. 협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떠들고 있어. 말이라고 얘기하나, 그걸?

그러면 1당을 뭐 하러 해요? 우리가 2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새누리당도. 지들이 1당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지들이 1당 되면 또 바꿔?

사람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소위원장 정희수 그것이 서로 공정하게……

○함진규 위원 보드판 좀 갖고 와 보라니까. 보드판 왜 안 갖고 와?

○소위원장 정희수 보드판은 됐고.

○함진규 위원 설명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명 좀.

○강동원 위원 서로 뭐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일 날 이 내용으로 보고가 됐었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거기 보고될 때는 구체적인 것까지 그렇게 보고가 된 게 아니에요, 교차만 하자……

○강동원 위원 교차가 돼서 1당이 먼저 뭐 이런 얘기까지 했지.

○소위원장 정희수 교차하는 것까지 했는데 이것을 그때 우리가 논의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전체회의에 가서 좀더 논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강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논의하니까 그것을……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이야기하니까……

○함진규 위원 (보드판을 가리키며)

이거예요. 이거 다 아시겠지만……

○강동원 위원 말씀 안 해도 알아요.

○함진규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박범계 위원 말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7개, 여기는 어차피 안 되니까. 여기서 맞춰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까지 합해서 백번을 양보해서 8개를 치자고, 범야권을. 그러면 2개 정도를 먼저 선택을 해라,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1당을, 뭐 하러 선거를 치릅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1개를 먼저 가져가는 거야, 선택. 그러면 여기는 몇 개가 되나요? 7개가 되나?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3, 4, 5, 6 해서 여기 그러면 몇 개가 되나, 18개가 되나? 17개, 16개 이렇게 가는 거야.

박범계 위원 말은 이것을 맨 뒤로 가서 여기서 받아……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강동원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 거 같고 2개를 먼저 했으면 세 번째는 야당에서 하자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권은희 위원 아니아니, 그 말은 아니에요.

○함진규 위원 어떤 것을? 이거 2개 하고 나서 이걸 세 번째?

○강동원 위원 아니, 그 다음에…… 지금 2번.

○함진규 위원 이거?

○강동원 위원 예, 그것을 먼저 세 번째로……

○함진규 위원 이거를 먼저 가자고?

○강동원 위원 그렇지.

○함진규 위원 그거는 논의하면 되는 거지.

○강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자는 얘기지요, 지금.

○함진규 위원 아니, 지금 박범계 위원님 말은 여기 있는 거 여기로 가자는 거예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소위원장 정희수 서 위원님, 그때 원 구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대충……

○이철우 위원 저는 선대위 회의……

○소위원장 정희수 9시에 끝낼 거예요.

○이철우 위원 난 9시에 회의라 지금 가야 돼요.

○소위원장 정희수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영교 위원 이철우 위원님이랑 밖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바로 좀 전에 했던 원 구성에서 문제는 법사위를 누가 갖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전체로 다 갖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크게 못 벗어나요, 야당이.

○함진규 위원 지금 위원회가, 먼저 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어디야? 법사위예요?

○소위원장 정희수 잠깐만,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서영교 위원 잠깐만요.

○함진규 위원 법사위하고 또 어디야,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위원회가? 운영위?

○서영교 위원 법사위, 운영위.

○함진규 위원 또? 뭐요? 서로 갖고……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결특위하고 국토해양위 쪽에 말씀을 많이……

○함진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냐고.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도 좀 해 볼게요.

밖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안에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계속 지연되고 막 이랬던 것 안에는 실제로는 지연됐던 이유가 원 구성만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받느니 특검을 받느니 이것도 말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우선 접어두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갖고 가도 이쪽에도 설득하고 가져와야지 이게 설득이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몇 명 얘기해 가지고, 지금 함진규 위원 안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게 원칙은 다 이야기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갖고 가서 절대로 말이 안 되어 가지고 오거든. 가서 이야기 못 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국회 안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야당 자존심 살려 줘 가면서 그러면서 풀어내고 이번에 해결 못 하면 다음에 하더라도 접근해 놓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40%만 동의하면 가는 것이지, 60% 반대가 아니라 40% 동의가 많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찢어져서 동의할 테니까. 이런

게 난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바로 직전 안을 보면 막 자존심 지키고 가지려고 했던 상임위는 법사위예요, 법사위. 그래서 지금 이철우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선 1당이 운영위 가지고 2당이 법사위 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법사위를 갖니 안 갖니 그러다 끝내는 야당이 갖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법으로 정해 버리자 이거예요. 1당이 운영위 갖고 2당이 법사위를 갖고, 그러면 뒤의 것은 그다음에 교차로 가져라라고 하든지, 이것만 정해 놓고 나면 제가 보기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 지금 이 안이 원칙적으로 다 맞아 가지고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가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오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말 없는 것이지요?'라고 하고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음에 바뀌어도 한 당이 독식은 안 하고 운영위, 법사위 이렇게 해 가지고……

○권은희 위원 그런데 서 위원님 말씀이 원안하고 똑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서영교 위원 원안하고요?

○권은희 위원 예.

○서영교 위원 아니요, 지금 원안은 뭐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안?

○권은희 위원 예.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안은 중요한 것 먼저, 운영위와 법사위를 먼저……

○권은희 위원 이거 말고, 원래 얘기했던 거.

○서영교 위원 예를 들면 중요한 몇 가지를 먼저 가지고 나머지 교차하자, 이게 오늘 내놓으신 안이에요.

○권은희 위원 오늘 내놓은 게 아니고 지금 운영위를 여당이 갖고 그다음에 법사위를 야당이 갖고 그다음에 교차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하나 교차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지요.

○서영교 위원 예, 그거예요.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1 대 1 대응이 안 되고……

○함진규 위원 나는 웃기는 게 선거를 왜 치르는지 모르겠어. 지들이 야당 됐을 때는 여당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고……

○서영교 위원 아니, 함 위원님, 그러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기반에 여야 합의를 못 한다니까.

○함진규 위원 합의도 중요하지만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지. 원칙도 없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권은희 위원 일단은 가만있어 보세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라니까. 뭐냐 하면 견제와 균형이 국회라니까. 뭘 1당이 독식을 해? 가져갈 거 다 가졌잖아, 국회의원 했잖아.

○권은희 위원 조용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얘기 좀 들어 봅시다.

○소위원장 정희수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서 위원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머지 그래도 비잖아요? 차이가 나는 것은 1당이 갖고 가고 그다음에 짝을 맞춰서 이렇게 교차로 해 나가자,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 비는 것은 나중에 1당이 가져가고, 그 숫자에 맞춰서 1당이 갖고 가야지요.

○함진규 위원 결론은 그거야. 우리도 하나 달라 이거야.

○권은희 위원 지금 이렇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안 맞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1당이에요. 1당은 운영위, 2당은 법사위를 갖고 그다음에 이 룰로 가자?

○서영교 위원 예, 그렇지요.

○권은희 위원 그다음에는 이 룰로 가자?

○서영교 위원 이 룰이 뭐예요? 그다음에 교차로 가자, 그러니까.

○권은희 위원 그러면 원안하고 똑같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가 10개, 7개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빼면 8개, 6개가 남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이거지. 권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18개 아닙니까? 18개 중에……

○서영교 위원 법사위는 야당이 갖되 나머지는 먼저 중요한 것을 여당이 갖는다……

○강동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소위원장 정희수 18개 중에 2개를 빼면 16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차이 나는 것은 1당이 다 갖고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맞춰 가지고 1 대 1로 교차하자, 그러니까 그 말이지.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운영과 법사위를 끝내고 1 대 1 교차하고 나머지를 1당이 갖고 간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거죠.

○소위원장 정희수 맨 마지막에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위에도 남는 것을, 역선택이 되니까.

○함진규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저렇게 얘

기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법사위는 어디가 갖고, 어디를 가진다고 규칙에다 그렇게 넣을 수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조문이 길어지겠지요, 구체적으로 하려면.

○함진규 위원 아니, 내 법 상식으로는 그것을 어느 위원회는 야당이 가져가고……

○권은희 위원 위원님, 그러면 운영위 법사위 하나씩 들고요. 그러면 9개 남고 6개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 9개 남고, 7개 남지요.

○권은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8개라 하면 7개 남고 9개 남으면 2개 차이를, 2개를 그러면 1당이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교차를 한다?

○서영교 위원 그게 위원장님 안이에요.

○권은희 위원 아니, 법사위 운영위는 미리 정리해 놓고.

○서영교 위원 저의 이야기는 위에서 먼저 교차하고……

○권은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얘기하는 교차안 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서영교 위원 기존에 얘기하는 교차안이 없었어요.

○권은희 위원 원래 하나씩 교차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영교 위원 그게 원래 올 독식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교차 그리고 위원장님이 올 독식과 견제와 균형의 교차를 지금 잘 의견을 수렴하셔서 내오신 안이 지금 이 안이고,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저런 안이 있는데 저 안에는 법사위를 주고 이것은 없었지요. 앞에 먼저 1당이 획득한 표만큼 먼저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교차하자, 이게 위원장님 안이셨고요.

○강동원 위원 지금 서 위원께서,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저 안은 뭐냐 하면 일단은 우선권을 제1당에서 두 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서영교 위원 먼저 갖는다 이 얘기잖아요.

○강동원 위원 그러고 나서 교차선택을 하는데 제1당이 또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희망하는 3개 위원장을 먼저 집권당이 갖고 그다음에 교차를 계속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함진규 위원 그러면 강 위원님은, 그러면 좋다 이거야. 얘기를 해 보자고요.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1당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 1번을 가져갈 것이냐, 여기서 1번을 가져갈 것이냐 또 군소정당에서 가져갈 것이냐 이거 선택의 문제인데 이거는, 제 생각 그렇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틀리실 수가 있지만 이것은 총선에서 우리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총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요새 선거판이.

그러면 1당 된 게 뭐예요? 책임정치를 구현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가 좋다고 그러는데 1당이 돼 가지고 운영위원회도 못 한다면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영교 위원 운영위 하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함진규 위원 아니, 들어 봐.

운영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서영교 위원 운영위 우리가 할게.

○함진규 위원 그러면 2개를 선택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라고. 아니, 거꾸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선택을 하냐고?

○강동원 위원 아니, 3당 그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권은희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함진규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하냐고?

○강동원 위원 양당구조니까 야당이 먼저 세 번째 갈 수 있는 것이고.

○서영교 위원 함 위원님, 제 안은 앞에 2개 있는 거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은 운영위, 법사위 그러고 난 다음에 3당이 있든 위에서부터 교차예요, 위에서부터.

○함진규 위원 하나씩은 그냥 가져가자?

○서영교 위원 그럼요. 위에서부터 교차예요.

○권은희 위원 그러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냥 막 교차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고, 운영위, 법사위를 하고 나머지……

○서영교 위원 아니, 그것은 정해지는 것이지.

○함진규 위원 이거 다 무시하고?

○서영교 위원 그럼요.

○권은희 위원 나머지에서 이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좀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운영위, 법사위가 쟁

점이 되는 위원회니까 1당은 운영위, 2당은 법사위 해 놓고 그다음에 그 갭이 2개 차이가 난다면……

○서영교 위원 그 갭을 1당이 먼저 갖자는 게 권 위원님 이야기이고, 그 갭은 전부 다 교차로 가고 나머지 남은 운영위는 1당이 가지면 된다, 이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른 거지요.

○권은희 위원 1당으로서 매력이 별로 없네요.

○서영교 위원 견제와 균형인 거예요. 1당은 본회의를 하고 모든 매력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 1당이 다 가지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 1당이 뭘 가져요. Winner takes all(승자독식)도 아닌데.

○서영교 위원 1당이 운영위를 갖는 것 가지고 상대 당 자존심을 팍 죽여 버리니까 안 풀리는 것이고.

운영위를 다 갖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장 자리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도는 나누고 전체 흐름에서 1당이 주도해 나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우리가 9시에 끝내야 되는데, 한 10분 남았는데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 위원님,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누가 1당이 되든 간에 1당에 대해 프리미엄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게 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남는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입니다. 그리고 1 대 1로 가질 때는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2당한테 더 유리한 교차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짝짓기를 다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원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서영교 위원 고민을 좀더 하고 의견을 좀더 나누고……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번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강동원 위원 두 분 간사님이 별도로 의논해 주세요.

○함진규 위원 이것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강동원 위원 그래도 만나셔야지요.

○함진규 위원 계속 지켜봤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고……

○서영교 위원 양쪽 다 간사님을 초선에서 교체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연륜이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타협을 하든 뭘 하든……

○함진규 위원 연륜의 문제가 아니고……

○서영교 위원 왜냐하면 초선들은 뭘 해 놓고 '국회 상황을 잘 모른다' 등 이런 얘기가 그다음에 나오면 책임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열정 그런 것도 되게 좋고 성실한 것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책임지기 어려워요.

○함진규 위원 그것은 인격모독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서영교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좀더 국회 운영도 알고 묘도 알고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해야 돼요.

○함진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국회의원들끼리 국회의원 관련된 것을 하라고 하면 협의가 안 되니까 외부기관에 줘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하면 어때요? 국회의원들끼리 국회의원 것 얘기하라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얘기 안 되거든요. 차라리 외부기관에 줘서 외부기관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소위원장 정희수 그래도 잘 안 돼요.

○서영교 위원 함 위원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들끼리 자기 것 내려놓으라고 그럴 때는 다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야 협상이라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국회의원 자기 것 내려놓으라고 하면 너도나도 다 내려놓잖아요.

○소위원장 정희수 박 위원 갔는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가셨습니다.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예, 말씀하세요.

○권은희 위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상을 논의했는데 이것보다는, 아까 문재인 후보님이 두 가지는 어나운스(announce)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여야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지금 이것은 4년 뒤에 적용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회폭력 방지는 당장에 적용돼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좋은 이야기예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것은 다음번에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렇게 논의를 했으니까……

○권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풀리지 않는 일인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외부의 자문이나 외부의 어떤 의견을 좀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진규 위원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그것을 갖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정희수 외부전문가를 해서 원 구성 협상이 만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가……

○함진규 위원 우리끼리 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 두세 개 기관에 용역을 줘서……

○서영교 위원 무슨 비용이 있다고 이것을 용역을 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이쪽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있고 저쪽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있잖아요. 우선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서 '당신들이 해 봤으니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이냐' 우선 그것을 먼저 듣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권은희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듣고 외부는 외부대로 또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그룹의 안을 좀 받아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희수 외부자문이 결국 교수 분들인데 옛날에 여기에 대해 이야기한 교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고 더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좋은 얘기 했는데, 제가 원내수석들 의견도 듣고, 양 간사하고 전부 모여 가지고 할 테니까 다음주 수요일(7일)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오전 7시 반에 다시, 어차피 회의들이 계속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7일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서영교 위원 특권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다 하고 애매한 것은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9일 7시 반 괜찮으세요?

○서영교 위원 그것은 맞춰서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안 풀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폭력 부분도 사실은 웬만큼 만들어져 있으니까 원내대표 거기에서 결정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가져온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권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서로가 자를 수 있는 것 정리하고 이 부분은 여야의 입장이 있으니…… 그리고 폭력 부분까지 해서 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 안이 오면 결정은 여기서 우리가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안을 운영위 쪽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 자기들도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간사들하고 같이 한번 모여 가지고 상의를 하고 조율을 좀 할 테니까……

○서영교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내대표에게 하라는 그것도 하시고요.

○권은희 위원 그것은 원내대표 얘기를 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쇄신특위를 만든 이유가 사실은 여기 안을 달라는 것인데 또 거기의 안을 달라고 하면……

○서영교 위원 그쪽 의견을 받아서 여기서 그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함진규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나아요. 여기서 얘기 잔뜩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딴소리 해요.

○소위원장 정희수 우리 안이 간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되면 안 돼요.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당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 얘기 듣고 와서 하는 것으로 해요.

○소위원장 정희수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소위는 9일 7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5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 동 원　권 은 희　박 범 계　서 영 교
이 철 우　정 희 수　함 진 규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최 민 수
입 법 심 의 관	이 계 인